

## 국제철도연맹(UIC), “AI 확장성·전이”를 정면 의제로 2025-2027 3개년 이니셔티브 가동

해당국가	국제	기관(기업)	국제 철도연맹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철도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- 국제철도연맹(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, UIC)은 ‘AI Scalability & Transferability’ 3개년 프로젝트(2025~2027) 착수에 맞춰 '25년 9월 파리 UIC 본부에서 첫 대면 워크숍을 개최하고, 철도 운영 분야 AI 적용의 “확산(스케일업)과 전이(타 현장 적용)”를 공동 의제로 설정
  - 재원 참여기관으로 DB InfraGo(독일), SBB(스위스), ÖBB INFRA(오스트리아), ADIF(스페인), FS-RFI(이탈리아), Iarnród Éireann(아일랜드), Infraestruturas de Portugal(포르투갈) 등이 참여하고, SNCF Réseau(프랑스)·Network Rail(영국) 등이 게스트로 참여
- 1. 철도 운영 AI의 현장 확산을 전제로 한 ‘산업화·운영화(MLOps)’ 논의
  - 회원들은 AI ‘스케일업과 산업화’ 이슈를 핵심 논의로 두고, 특히 머신러닝 운영(MLOps) 생명주기(lifecycle)를 포함한 운영체계 관점을 주요 주제로 논의
  - 성공/실패 사례의 교훈 공유와 ‘빠른 성과(quick wins)’ 발굴을 함께 논의해, 기술 데모 중심이 아니라 운영 현장 적용을 전제로 한 과제 선별 방향을 포함
- 2. 데이터·사전학습 모델 공유를 통한 공동 개발 기반 강화
  - 데이터셋 공유와 사전학습 AI 모델 공유를 주요 의제로 명시하여, 기관별 단독 구축을 넘어 공동 기반으로 만드는 접근을 포함
  - 타 산업의 모범사례도 함께 다루며, 철도 분야 내부 최적화뿐 아니라 외부 산업의 운영·확산 방법론을 이식하는 방향을 병행
- 3. 신뢰성과 거버넌스, 표준·전이성 의제의 동시 제기
  - 설명가능 AI(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, XAI)를 ‘신뢰 가능한 AI’ 및 철도 전문가 수용성과 연결해 논의하고, 투명성·설명가능성을 확산 조건으로 전제
  - 향후 탐색 영역으로 AI 표준, 모델 전이성, AI 거버넌스를 제시해,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·운영 규범 정립을 병행하는 의제를 포함

※ 출처 : UIC(2025.09), Artificial Intelligence in Rail: First Artificial Intelligence, Scalability & Transferability workshop takes place